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필수 안내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69
2024. 08

부산체육인
제33회 파리올림픽경기대회
부산선수단 활약 돋보이기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 김규리 선수

Sports is Busan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4년 신입 임원 소개
- 브레나 베스트 플레이어

부산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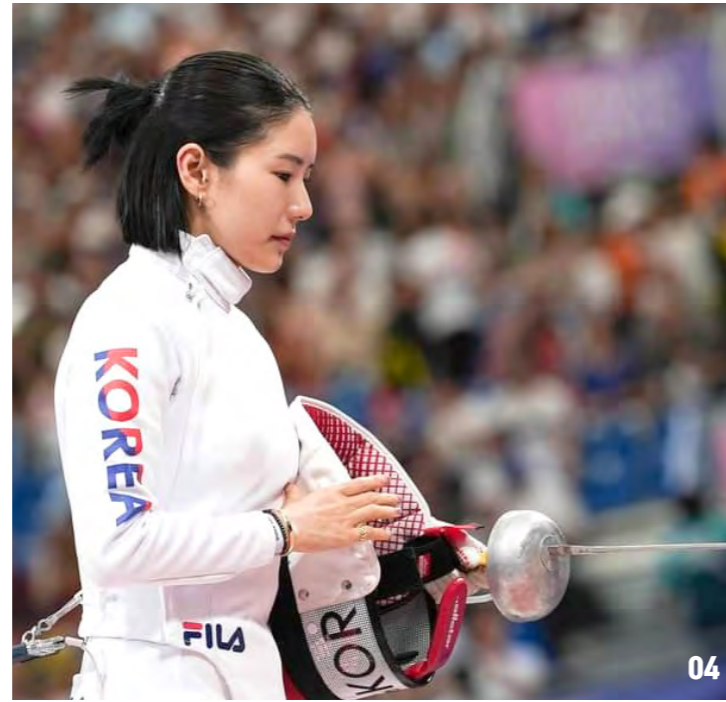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4. 08 Vol. 69



발행일 2024년 08월 14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6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김도희,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B BUSAN HEROES

- 04 부산체육인
제33회 파리올림픽경기대회
부산선수단 활약 돋보기
- 08 부산체육 꿈나무
동아중학교 골프부
- 12 부산체육 발자취
2017년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 16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 김규리 선수

S SPORTS SERVICE

- 20 Sports is Busan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4년 신입 임원 소개
- 브레나 베스트 플레이어
- 24 스포츠 파노라마
스포츠 관전 비매너 및 폭력 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 28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강서구국민체육센터

G GOOD LIFE

- 30 스포츠 라이프
오세영웨이크캠프
- 34 스포츠 기고·부산스포츠 기자단
- 모동중학교 수영부 창단식
- 2024부산체육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 38 스포츠 PLUS+
요트
- 42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2024부산비엔날레
- 44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 마키타 젠지

S FOR SPORTS CITY

- 46 BSC 뉴스
- 50 회원단체 소식
-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 신평장림체육관
- 56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제33회 파리올림픽경기대회

치열했던 17일, 부산선수단 활약 돋보이기

세계인의 축제 제33회 파리올림픽경기대회가 막을 내렸다.
보름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피어난 감동과 희열을 안방으로 전해준 부산 선수들.
그들이 파리에 새기고 온 저마다의 기록과 이야기를 돌아본다.



사격에서 첫 메달, 말언니와 왼팔 사수의 도전

이번 대회,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건 부산광역시 체육회 소속의 박하준 선수다. 7월 27일(토) 저녁에 열린 사격 혼성 10m 공기소총 결승에서 금지현(경기도청) 선수와 조(이하 박하준 조)를 이뤘던 은메달을 합작했다.

박하준 조는 예선에서 631.4점을 기록하며 28개 팀 중 2위로 결승에 올랐고 632.2점을 쏘며 1위로 결승에 진출한 중국과 맞붙었다.

선수 각각 한 발씩 발사, 합산 점수로 세트 스코어를 2점씩 따내는 결승에서 박하준 조는 초반 불리한 스코어를 따라잡기 위해 애썼지만, 16대12로 석패하며 은메달에 그쳤다.

한국 선수단의 말언니인 이보나 선수 역시 투혼을 불살랐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인 그는 이번 대회 여자 트랩에 참가했다. 본선 2일 차 경기에서 24위에 머물며 결선 진출은 불발됐지만 무려 20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도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원호 선수는 10m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에 진출했으나 아쉽게 4위에 그쳤다. 메달 소식을 전하진 못했지만 아쉬움이 덜한 것은 그의 비상이 현재진행형인 덕분이다. 고등학생 시절, 갑작스러운 오른팔 떨림 증상으로 은퇴 기로에 섰던 그는 대학에 진학하고 2018년, 왼팔 사격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은메달, 혼성 10m 공기권총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장국희 선수는 여자 스키트 본선에서 21위, 혼성 단체전에서 7위에 그치며 결승전에 진출하진 못했다.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 박하준 금지현 선수
사진출처: 본인 제공



사격 여자 트랩 - 이보나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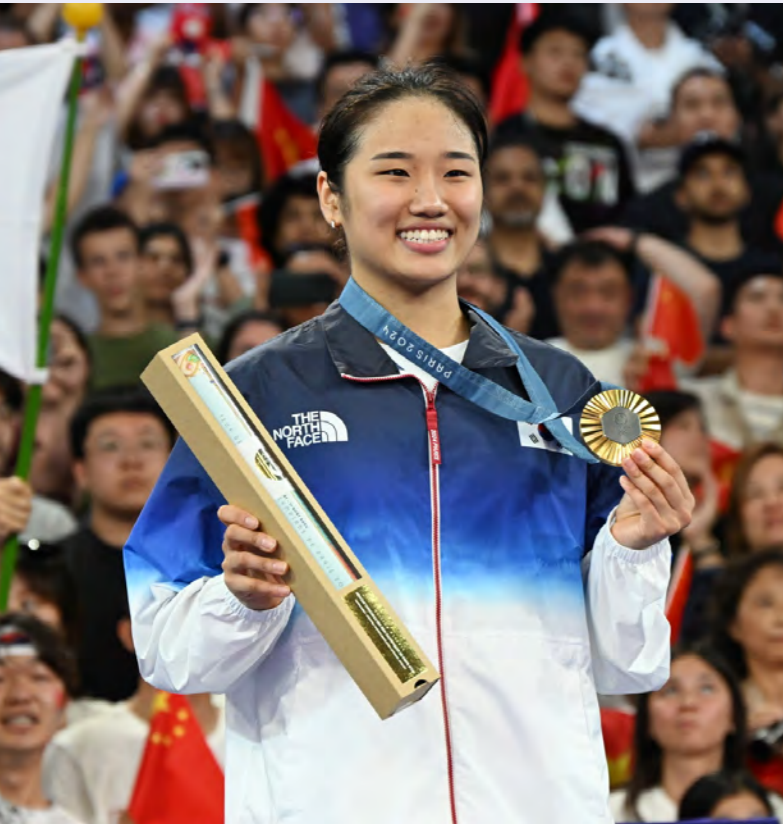


사격 10m 공기소총 개인 - 이원호 선수



사격 여자 스키트 - 장국희 선수

사진출처: 부산광역시사격연맹



배드민턴 여자단식 -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혼합복식 - 김원호·정나은 선수

사진출처: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파리에서 또 한 번 증명

여자 배드민턴 단식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안세영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5일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허빙자오(중국)를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배드민턴의 올림픽 단식 우승은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의 방수현 선수 이후 28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김원호 선수는 혼합복식에서 정나은(화순군청) 선수와 함께 은메달을 따냈다.

준결승전에서 서승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 조에 2대1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한 김원호-정나은 조는 결승에서 중국 정쓰웨이-황야중 조를 상대로 분투했지만 세계랭킹 1위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비록 은메달에 그쳤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용대-이효정 조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16년 만에 수확한 메달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탁구, 12년 만에 메달 획득

탁구의 임종훈 선수는 빼약이 신유빈(대한항공) 선수와 함께 출전한 복식 경기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을 압도적 실력차로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복식과 혼성 복식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임종훈 선수는 이번 올림픽 메달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입대를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그 기쁨이 더욱 크다.



탁구 복식 - 임종훈·신유빈 선수

이로써 한국 탁구는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오상은·주세혁·유승민이 은메달을 획득한 후 12년 만에 메달을 획득했다.

약조건 속에서도 유종의 미 거둔 대한민국 선수단

대회 기간, 선수촌 시설 이슈와 판정 논란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대한민국 선수단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자 양궁은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하며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고, 사격 종목 김예지 선수의 시크한 사격 모습과 이에 대비되는 발랄한 인터뷰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선수단에 집중되기도 했다.



여자 펜싱 에페 - 송세라 선수
사진출처: 본인 제공

요트 종목에 대한민국 유일 대표로 출전한 하지만 선수는 남자 레이저급 딩기 1~8차 레이스에서 26위를 기록하며 메달 획득엔 미치지 못했지만, 2008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5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도전, 역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국 여자 펜싱의 최후의 보루 송세라 선수는 개인전 16강에서 탈락했지만, 경기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며 이번 대회 유일 구기종목으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핸드볼 팀은 김다영·신진미·송해리 선수가 분전했음에도 조별리그에서 덴마크에 발목을 잡혔다. 비록 본선 진출은 실패했지만 세계적 강호 독일을 획기적 전술로 잡아내며 파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린 위의 스윙 스타들, 호쾌한 샷을 날리다!

동아중학교 골프부

스윙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 골프.
푸른 필드 위를 누비며 '나이스 샷'을 날리는 동아중학교 골프부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필드 위에서는 선의의 경쟁자, 골프부에서는 둘도 없는 동반자

골프는 카멜레온의 보호색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갈 때 얻는 성취감이 매력적인 스포츠로, 오랜 시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동아중학교 골프부 선수들은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배 선수권 대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 선수권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하며 상당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우수한 수상 이력이 증명하는 실력과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선수들의 가장 큰 강점은 ‘인성’과 ‘팀워크’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 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시합에서 서로 응원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감 없이 공유하며 서로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소통과 라포 형성을 중요시하는 동아중학교 골프부 이동규 부감은 선수들이 인성을 겸비하는 것은 물론, 페어플레이와 팀워크에 필요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우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우관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선수들을 관리합니다.”



이동규 부감교사





할 수 있었던 이유, 라포 형성

이동규 부감은 선수들을 만나면 훈련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합에서 실수했던 상황들,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상기시켜 준다.

“마음에 담아둔 실수의 기억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주고, 좋은 기억들은 다음 대회까지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화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던 덕분에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영석 지도자는 선수들의 인성과 팀워크를 기반으로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부를 운영하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봄에는 벚꽃이 피고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듯이 각자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서있고 뒤쳐진 것처럼 보일 지라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성장해 나갈 길 바랍니다. 동아중학교에서 배웠던 과정들이 먼 훗날 밑거름이 되어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조영석 지도자는 골프부 학생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들이 훌륭한 개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Mini interview

곽재국 교장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텐데도 교실에서 항상 밝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모습, 언제나 예의 바른 자세로 선생님들께도 칭찬을 듣는 모습에 늘 대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대회 때마다 뜨거운 응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운동하는 선후배 동료들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힘들 때는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길 바랍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학교의, 나아가 우리 부산시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아중학교 골프부 파이팅!

선수 Interview

- 1 나에게 골프란? 2 멘탈 관리 비법은? 3 마지막 포부 한마디



윤다감 선수

- 1 매일매일 싸우면서도 함께 있는 ‘동반자’입니다.
- 2 골프는 자신감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등 주문을 외우며 멘탈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 3 아마추어, 국가대표를 거쳐 LPGA에서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롤모델인 ‘넬리 코다’처럼 멋진 스윙을 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김태휘 선수

- 1 18홀 골컵에 공을 넣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즐기게 되는 ‘멋진 스포츠’입니다.
- 2 ‘그냥 하자’는 단순하고 무던한 마음가짐이 노하우입니다.
- 3 멋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항상 주변을 챙기는 훌륭한 선수가 되어 PGA 우승컵을 들고 싶습니다.



손제이 선수

- 1 늘 곁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 2 외부 환경이 아닌, 오직 제 스코어만 생각하며 경기에 임하는 것이 저만의 멘탈 관리법입니다.
- 3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하여 인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골프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2024 수상내역

- 제38회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배 춘계종별 선수권대회
여중부 1위 윤다감 / 남중부 1위 김태휘, 2위 강동희
- 제38회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배 학생골프 선수권대회
여중부 3위 윤다감 / 남중부 1위 손제이, 3위 이승후
여중부 단체전 2위 윤다감·김미송 / 남중부 단체전 2위 양승준·김민상·이승후
- 제22회 부산광역시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 학생골프 선수권대회
여중부 1위 윤다감 / 남중부 1위 손제이
여중부 단체전 2위 윤다감·김미송 / 남중부 단체전 2위 김태휘·강동희·손제이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대표 여자 단체전 1위 윤다감 외 2명 / 남자대표 손제이·김태휘 외 1명





부산체육 발자취



2017년

부산 체육계에는 어떤 일이?

글.원성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체육의 비전과 목표를 '체육의 통섭, 스포츠로 부산을 키웁니다.'로 정하고 경기력 향상과 전문체육 기반·지위 강화를 통해 부산의 위상 키우기, 2018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 60%로 끌어올려 시민건강 키우기, 스포츠클럽 육성과 안정적인 선수 육성 체계 조성을 통해서 미래 희망 키우기, 국제대회 유치와 스포츠 교류 등 대외 이미지 제고로 국제 경쟁력 키우기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L
I
N
C
O
C
O
R
T
S
P
O
R
T
S
A
N
S
B
U
S
A
N
2
0
1
7

특히 전문체육 강화와 전국체육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생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 정예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체육회는 선수 전력 향상 차원에서 정책 종목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성과에 따라서 훈련비 차등 지원, 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업팀 창단 지원을 하는 등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경기에서 안정적인 성적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전문 체육 분야 강화에 힘써

2017년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강원도, 서울, 경기에서 열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 부산시 선수단은 스키와 빙상 종목에서 선전해 목표했던 '11년 연속 종합순위 5위'를 달성했다. 부산시 선수단은 총 6개 종목에 269명(선수 77명, 임원 19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8, 은 11, 동 8개를 획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 5위에 오르는 성과를 일궈냈다.

부산 유일의 스키 실업팀인 협성르네상스가 전국 대회에 첫 출전해 크로스컨트리 남자 일반부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 김마그너스 선수(협성르네상스 소속)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열린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남자 크로스컨트리 역대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체육 꿈나무 육성과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7.5.27.~5.30.)가 아산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시는 34개 종목에 1,046명(선수 708명, 임원 33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 21, 은 14, 동 36개 등 총 7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광역시 선수단은 총 46개 종목에 1,586명(선수 1,198명, 임원 388명)이 참가하여 금 68, 은 55, 동 76개로 종합 순위 8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성적 종합 순위 6위(금 69, 은 67, 동 83)보다 2계단 떨어진 부진한 성적이었다. 그렇지만 내용면에서는 개인전 종목에서 부산은 메달 수가 5위권 안에 진입할 정도로 예년보다 나은 성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격에서 진종오(KT) 선수가 세계신기록을 달성했고, 핀수영에서는 이동진 선수(부산시체육회)가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득점 비중이 높은 단체전 종목에서 대진운이 따르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종합순위가 뒤로 밀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유도선수단은 금 3, 은 4, 동 9개 등 16개의 메달을 획득해 총 메달의 30% 이상을 끌어오는 쾌거를 달성했고, 야구 고등부 결승에서는 경남고가 마산 용마고를 꺾고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해 의미를 더했다.

16개 구·군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생활체육 내실화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전문체육 중심의 체육회와 동호인 중심의 생활체육회가 '부산광역시체육회'로 통합되었지만 운영상의 미숙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내실화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다져나갔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28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11월 5일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실내체육관 등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사상구가 종합 1위를 차지해 26회, 27회 종합우승에 이어 '3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16개 구·군 전역에서 범시민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가 종목별 클럽 리그전으로 펼쳐졌다. 볼링, 야구, 탁구 등 3개 종목에 830개 클럽, 12,320명이 참가해 각 종목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면서 클럽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붐 조성에 기여했다.

장애인 체육에서는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2017.2.7~2.10, 강원도) 및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17.9.15~9.19, 충청북도)에서 부산시가 종합순위 4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 동계체육대회 7위에서 4위, 전국대회 5위에서 4위로 각각 향상된 성적이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00평 규모의 장애인 역도훈련장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조성하기도 했다.

각종 국제 경기대회 성공 개최로 국제 스포츠 도시 부산 명성 높여

2017 부산컵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가 11월 13일부터 6일 동안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한 세계요트연맹 공인 1등급 대회이다.

9개국 12개 팀(60여 명)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세계 랭킹 12위의 루시 맥그리거(Lucy Macgregor·영국)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트리네 팔루단(Trine Palludan·덴마크)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해 이변을 낳았다.

앞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2017 아시아 세일링워크가 펼쳐져 메인 대회인 2017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 격년으로 45년간 열린 제23회 한일 친선 아리랑 요트 레이스, 제18회 부산시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차례대로 개최됐다.

부산 최초로 특화된 스포츠 이벤트인 2017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경기대회가 5월 12일, 13일 양일간 용두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9회째 맞은 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는 부산 시민은 물론 부산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부산 알리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포츠 도시부산 로드맵 발표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서병수 부산시장이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광역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 장애인 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복지 구현, 시민 맞춤형 체육 인프라 확충, 스포츠 관광 콘텐츠 자원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 등 총 6대 과제 27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5년간(2018~2022년) 약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 참여율(56.1%)과 동호회 참여율(11.4%)을 각각 2022년에 70%와 20%로 끌어올려 생활체육 분야를 활성화하고, 숙소·훈련장·스포츠과학센터를 갖춘 부산형 종합선수촌을 조성하여 엘리트 체육 분야를 지원,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 등을 목표로 했다.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을 앞두고 11월 4일 올림픽 성화가 부산에 도착해 3일간 부산 전역을 돌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산시민의 관심을 높이며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홍보했다.





대한민국 여성 최초

철인3종 올림피언을 꿈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철인3종 김규리 선수

‘2024 콕세타우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컵’ 엘리트 여자부 경기에서 완주 시간 2시간 3분 18초를 기록하며 1위에 오른 김규리 선수. 이번 아시안컵 우승은 그의 다음 목표인 아시안게임, 올림픽 우승으로 가는 데 한층 힘을 실어 주었다.

사진출처: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

첫 ‘아시안컵 우승’

트라이애슬론, 즉 철인3종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쉬지 않고 연속해서 실시하여 완주 시간으로 경쟁하는 종목이다. 1970년대에 공식 대회가 열린 이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회에 따라 세 종목의 거리가 다른데, 올림픽의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수영 1,500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10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2024 콕세타우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컵’ 역시 올림픽과 같은 구성으로 경기가 펼쳐졌으며, 여기서 김규리 선수는 생애 첫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 함께 출전한 팀원들의 힘찬 응원과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신 박찬호 감독님 덕분에 값진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있었던 날 아침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타트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몸을 풀었고, 수영을 선두 그룹으로 나와 사이클도 선두 그룹으로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다른 선수들보다 달리기를 먼저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다리에 쥐가 나 페이스를 올릴 수 없었다. 대신 최대한 속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다행히 두 번째 반환점을 돌 때 쥐가 풀리기 시작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그의 좌우명처럼 결승선을 지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의 노력을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 기복이

없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경기도 후회가 없도록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김규리 선수는 종목별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트레칭, 코어 훈련을 한다. 수영은 보통 5000~7000m, 달리는 주 2회 정도의 강도 높은 인터벌을 비롯해 조깅, 장거리 달리기(LSD, Long Slow Distance)를 한다. 세 종목이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근육을 바꾸는 훈련인 근 전환 훈련도 열심히 한다. 사이클에서 내려 곧장 달리기를 할 경우 근육이 뭉치거나 쥐가 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종목별 훈련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라고 한다. 컨디션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매일 주어진 훈련량을 소화해 내는 건 물론이고, 기온이 너무 낮은 날만 아니라면



비가 오는 날에도 훈련은 계속된다.

하지만 부상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법. 김규리 선수는 2020년 호주 전지훈련 중 사이클을 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을 크게 다쳤다. 주치의가 운동을 그만두는 것을 권유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으나 김규리 선수의 선택은 수술과 재활 훈련이었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 하나로 기약 없는 재활 훈련에 매진한 끝에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그것기에 부상도 극복해 냈으리라.



사랑과 응원으로 버텨낸 시간

김규리 선수는 '2024 가마고리 아시안컵'에서 또 한 번 부상을 입었다. 사이클 경기 중 앞서가던 선수가 코너를 돌다 넘어지면서 김규리 선수의 사이클을 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같이 넘어진 것이다. 그렇게 10위를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운이 좋게도 사이클에 이상이 없었고, 바로 일어나 경기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부상 부위의 아픔보다는 완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훈련이 힘들 때마다 감독님, 코치님, 재활치료 선생님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좋을 때나 힘들 때 언제 어디서든 나무처럼 묵묵히 곁에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응원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김규리 선수는 자신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데에도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웬 요르겐센 선수의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가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철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다

“철인3종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 종목을 해야 하니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사전에서는 철인을 '몸이나 힘이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몸이나 힘이 무쇠처럼 강해지려면 당연히 정신력도 강해야 할 터. 철인3종을 완주했을 때 '철인'이라는 칭호가 괜히 부여되는 게 아닌 것이다. 이처럼 철인3종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종목임이 분명하지만, 또 그만큼 강한 매력을 가졌다.

“철인3종을 하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한 종목 이상 생기는 거예요. 수영복 한 벌만 있으면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고, 자전거만 있으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어디서든 달릴 수 있죠.”

김규리 선수가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종목은 달리기다. 달릴

때만큼은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 특히 이른 새벽 고요한 숲길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걸 좋아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싶거나 짜릿한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다면 철인3종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설령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도전 과정에서 나만의 운동이 하나쯤 생길지 모른다.

현재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 김규리 선수. 그의 최종 꿈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철인3종 올림픽이 되어 국위 선양하는 것이다. '2024 콕세타우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컵', '제4회 양산시장배 황산 전국철인3종대회' 등 최근 여러 대회에서 거듭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에 자신의 바람대로 기록 없는 선수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볼 김규리 선수를 기대하게 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2024년 신입 임원 소개



권봉재 부회장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이자 (주)신일디엔피 대표이사 권봉재입니다. 부산의 체육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육회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이사

장애인 HR 올인원 솔루션 전문기업 (주)브이드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쁩니다. 부산체육 발전과 시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행사 참여 및 재정적 지원으로 체육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재 이사

부산광역시체육회 신입 이사이자 (주)서프홀릭 대표 신성재입니다. 부산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서핑과 요트투어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은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로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해양레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나 이사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로 부산의 체육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육회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춘 이사

먼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해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와 체육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모범도시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이사

국내 최대 꽃배달 플랫폼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이자 이번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신입 이사로 선임된 김태진입니다. 동의대학교 체육학 전공의 경험과 기업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부산광역시체육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기여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박준형 이사

부산 해운대에서 20년간 피부과 진료를 통해 부산시민들의 피부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박준형입니다. 신입 이사로 선임해주신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mens sana in corpore sano)라는 말처럼 부산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배수필 이사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가족이 되어서 체육의 생활화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한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활체육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며, 부산시 체육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봉 이사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로 선임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을 적극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각종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며, 체육전공자로서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체육 및 부산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이사

대학의 다양한 교육 경험, 카바디 국가대표팀 총감독의 열정,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작된 부산 장애인아이스하키팀 회장 의 재능기부까지 묶여 부산의 학교체육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된 마음으로 2025년 부산 전국체육대회가 빈틈없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에서 맡은 소임과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철 이사

이번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로 선임된 (주)미래와사람들 대표이사 최호철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부산체육 발전에 열심히 기여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브레나 베스트 플레이어

부울경 청소년 e스포츠의 열기를 담다

지난 7월 28일, 부산e스포츠경기장에서 부산광역시장배 '브레나 베스트 플레이어' 대회가 열렸다. 부울경 지역 최고의 청소년 아마추어 게이머를 가린 뜨거웠던 대회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e스포츠의 성지, 브레나

부산e스포츠경기장(이하 브레나)은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 MSI 2022'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 운영 능력을 입증하고,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e스포츠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브레나 베스트 플레이어' 청소년 최강자전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발로란트(VALORANT)와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두 개 종목으로 진행되어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 지역의 중·고등학생 총 55개 팀 292명이 참여하여 부·울·경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통해 학업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대회 결선에서는 전문 강사진의 코칭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브레나 현장을 찾아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학교별 응원전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김태열 원장은 "브레나 베스트 플레이어 대회의 첫 시작인 부·울·경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성료되어 브레나의 대표 아마추어 대회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되었다"며, "브레나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생활 e스포츠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브레나 베스트 플레이어 대회는 청소년에 이어 올해 10월 직장인 최강자전, 11월 아마추어 종합 최강자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짜릿한 승부의 현장

싱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7월 20일과 21일 펼쳐진 예선전을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종목에서는 대양고등학교와 김해수남고등학교가, 발로란트 종목에서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와 기장고등학교가 결선에 진출했다.

28일 정오부터 시작된 발로란트 결승전은 3전 2선승제로, 중간 작전 타임 없이 진행되었다. 로터스 맵에서 펼쳐진 1세트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아이스박스 맵에서의 2세트를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연이어 승리하며 2대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진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 역시 3전 2선승제로 진행되었으며, 1세트에서는 원거리 딜러 이즈리얼의 활약, 2세트에서는 탑 레넥톤과 미드 탈리아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대양고등학교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각 종목 우승팀에게는 부산시장상과 트로피가 수여되었고, 준우승팀에게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종목별 상위 4팀에게는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특히, 청소년 e스포츠 최강자로 이름을 올린 두 학교는 올해부터 e스포츠 학과를 신설한 학교로, 앞으로 e스포츠 꿈나무들과 브레나가 이끌어가길 부산 e스포츠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사진출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포츠 관전 비매너 및 폭력 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올해 6월 열린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축구 팬들의 난동이 잇따라 발생해 세계 스포츠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번 호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전 중 발생하는 폭력 사태 및 비매너 행위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본다.



경기의 승패 여부에 관여했던 관중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스포츠 경기는 대중들에게 큰 오락거리였다. 그리스에서는 권투, 레슬링, 격투기 등이, 로마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인기 있었다. 관중들은 열성적으로 응원했고, 스포츠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으며, 훌륭한 기술을 선보인 선수에게 경의를 표할 줄 알았다. 특히 검투사 경기에서 관중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누가 이겼는지 심판하는 이는 최종적으로 그 경기의 주최자인 고위 관리(또는 황제)였다. 하지만 그 관리도 관중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살피서 어떤 선수가 더 많은 찬사를 받았는지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 때로 심판은 관중들의 반응에 따라 공동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관중들은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중석을 떠나는 것으로 무언의 항의 표시를 했다. 그래서 시합 도중 관중석이 텅텅 비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들도 스포츠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그렇다고 이 시대 관중들이 모두 매너가 좋았던 건 아니었다. 당대 스포츠 경기는 주로 종교 축제 기간에 열렸기 때문에 폭력은 엄격하게 다스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이나 심판 판정에 관중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폭력이나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펜스를 사이에 두고 서로 과격한 설전을 벌이고 있는 팬들

참고 자료 : Zinou Papakonstantinou, 「Spectator-Athlete Interaction in Ancient Greek Athletics」 / Frontiers, 「Spectator sports and fan behavior」 / Monash University 홈페이지 등

축구팀의 극성팬들, 훌리건이 되다

현대에는 특히 유럽 리그의 축구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관중을 가리키는 용어가 '훌리건(hooligan)'이다. 훌리건은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19세기 말, 영국의 뮤직홀에서 난동을 일으킨 훌리건 집안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훌리건이 본격적으로 '축구팀의 극성팬'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초이다. 실업자와 빈민층들이 대거 축구장에 몰려 경기가 끝날 때마다 당시 보수당 정권에 대한 여러 불만을 시위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흥분한 사람들은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했고, 한두 사람이 시작한 싸움은 집단 난투극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처럼 축구장의 폭력과 안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영국정부는 1989년 이른바 '축구관중법'을 제정하고 축구장에 입장하는 관중들을 규제하였으며, 관중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관전 질서를 유지하고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우발적인 사태보다 더 다루기 힘든 것은 갱단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훌리건' 단체들의 난동이다. 각국 정부나 구장 관계자들은 극단적인 행위를 일삼는 훌리건 단체들을 일반 관중과 구분해 입장을 제한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 2022년 키프로스의 치리오 스타디움에서 과열된 축구 팬들이 폭죽과 화염을 터트리는 모습



▲ 축구 경기 관전 중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축구 팬들

근절되기 쉽지 않은 폭력 및 비매너

선수들을 향한 모욕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언행, 음식물, 음료수, 물병, 기물 등을 던지는 행위, 좁은 입구나 출구를 향해 마구잡이로 빠져나가려고 몰려드는 행위, 경기장 내 기물 파손, 침 뱉기, 싸움, 총격 등의 비매너 행위 문제도 심각하다. 법 제정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관전 중 폭력 사태 및 비매너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5년 5월 29일 벨기에 브뤼셀 헤이젤 경기장에서 열린 1985년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는 리버풀 FC와 이탈리아 유벤투스 훌리건의 충돌로 39명이 사망하고 4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1989년 4월 15일 리버풀 FC와 노팅엄 포리스트 간의 FA컵 준결승전에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5월 11일 우리나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인천-FC서울전에서는 홈구장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FC서울 주장 기성용이 물병에 급소를 맞아 쓰러졌다. 이러한 비매너 행위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홈경기 응원석 5경기 폐쇄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물병을 투척한 이를 찾아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했다. 인천 팬들을 자극한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는 제재금 700만 원이 부과됐다.



▲ 스포츠는 모두가 즐기기 위한 것임을 명심할 것

지속가능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사실 법적인 처벌 같은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관중'인 우리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관전 문화'일 것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의 응원단 '붉은 악마'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광화문에 몰린 수십만 명의 인파가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롭게 응원전을 펼쳤으며, 경기에 졌다고 선수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머문 자리에는 쓰레기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처럼 과거에 이미 성숙한 관전 문화를 선보인 적이 있었다.

2018년 월드컵에서도 일본, 세네갈, 한국 팬들은 경기 후 앉았던 좌석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 세계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 관중들이 자국 선수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응원하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찬사를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은 성숙한 관전 매너에 관한 규범집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경기 관계자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한 매너로 포함되었다. 심판의 결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며 아우한다거나 상대팀 선수 및 관중을 비난하는 것도 비매너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규범집은 관중으로서 우리 모두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경기장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 진행을 방해하지 말 것, 모든 종류의 차별 행위를 하지 말 것, 신체적·언어적 비방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중요한 미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대학 외에도 많은 대학이나 스포츠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관전 매너 규범집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이런 규범집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번쯤은 참고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자연과 가까운 체육 공간으로 강서의 건강을 밝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김해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탁 트인 전경이 더욱 돋보인다. 쾌적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자부하는 강서구 국민체육센터를 소개한다.

Q.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에 개관한 복합문화센터인 강서 브라이튼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길이 25m, 수심 1.35m의 6개 레인과 유아풀을 갖춘 넓은 수영장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실, 3층에는 헬스장과 체육관 다습홀, 그리고 4층에는 스튜디오 1,2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 명랑한 강서'를 슬로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상근직원 11명과 파트강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3만 2천여 명의 이용객이 센터를 찾아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Q.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강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센터에서는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프로그램과 요가, 바디쉐이핑 등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쉐이핑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구를 활용한 강도 높은 운동으로, 체중감량에 효과적입니다.

강습 수영은 평일 폭넓은 시간대로 운영되며, 어린이 수영은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간대 사이에는 자유 수영 시간으로 운영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 수영 레슨도 마련되어 있으며, 방학 기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영 특강을 진행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서구국민체육센터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수영장입니다. 대부분의 수영장은 지하에 위치해 다소 어둡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반면, 우리 센터의 수영장은 1층에 위치하고 세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채광이 좋고 푸른 자연환경 속에서 수영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밝고 쾌적한 환경은 이용객들에게 개방감과 활력을 더하며, 수질도 뛰어나 수영 애호가들에게는 '수영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자유 수영을 즐기러 오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또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타 센터들에 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산 지역의 대부분 체육센터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강서구는 지역 주민에게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토박이 예우 조례'가 제정되어, 3대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주민 복지 측면에서 부산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Q. 강서구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있어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진 넓고 쾌적한 시설을 활용하여 외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휴 시설을 줄이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 전문기업과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 관리서비스 마루운동과 수중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Mini Interview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김수봉 센터장

우리 직원 모두는 단순히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국민체육센터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타공인 부산대표 수상스키 & 웨이크 스포츠 동호회

오세영웨이크캠프

작열하는 태양아래
미끄러지듯 물 위를 질주하는 보트와 사람들
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짜릿하고도 자유로운 세계
부산 대표 수상스키&웨이크 스포츠 동호회
'오세영웨이크캠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윤주 선수



오지태 선수

Q. '오세영웨이크캠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캠프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즐기는 동호회 회원과 학생·일반부 선수들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 동호회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뛰어난 기량으로 선수 생활을 병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부산으로 내려와 회원들과 동호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감독 겸 회장을 맡은 저(오세영)는 작년까지 전문선수로 활동하다, 올해부터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이하 '웨이크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자 동호회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훈련이나 대회 준비 업무를 회장인 제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Q. 수상스키와 웨이크 스포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보통 웨이크보드, 서핑을 묶어 웨이크 스포츠라고 합니다. 수상스키는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디어에 노출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상스키' 하면 대부분 양발에 플레이트를 신는 모습을 상상하시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한쪽 발에만 플레이트를 착용합니다. 경기 방식은 눈 위에서 타는 알파인스키와 유사합니다. 6개의 불이 설치된 코스를 얼마나 빨리 완주하는지 기록을 경쟁합니다.

반면 웨이크는 양발에 고정하는 보드를 신습니다. 보트의 동력으로 수면을 미끄러진다는 점에선 스키와 비슷하지만 경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상스키가 육상이라면 웨이크보드는 기계체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트가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물살을 이용해 여러 기술을 구사하는데, 난도 높은 동작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사하는가를 겨룹니다.

Q. 동호회 구성원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중학생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인 만큼 취미로 즐기는 분이 많지만 개중에는 기량이 뛰어나 전문선수도 병행하며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 선수는 물론 청소년 국가대표도 우리 캠프에서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Q. 수상 경력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종목 수상내역을 일일이 말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상실적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24 수려한 합천 코리아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타 대회'에서는 남자 비기너 부문에서 1위와 2위, 어드밴스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고 여자 비기너 부문에서 2위와 3위, 어드밴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생 부문에서도 2, 3위를 우리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요 몇 년 출전한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리 캠프가 많은 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영웨이크캠프 수상내역

2024 수려한 합천 코리아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타 대회

- 남자 비기너 1위 박태주, 2위 이인수
- 남자 어드밴스 2위 이진용
- 여자 비기너 2위 김하은, 3위 배환희
- 여자 인터미디어 2위 김윤주
- 여자 어드밴스 1위 김애리
- 학생부 2위 오지태, 3위 심현준

제37회 전국남녀 학생종별 국가대표 선발전 및 대구대회

- 남자A 3위 박진호, 4위 이진용
- 남자B 3위 주용철
- 남자C 4위 황상훈
- 여자 A 1위 김애리
- 중등부 주니어부 1위 오지태, 2위 심현준

Q. 동호회 자랑거리가 있다면?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동호회에 들어온 분들도 언제부터인가 본격적이고 진지하게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들 본업이 있는 분들임에도 여느 전문선수 못지않게 열심입니다. 휴일마다 모여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젠 회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지고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감이 우리 동호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Q. 동호회 운영에 있어 특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코치들과 회원들에게 인지시킵니다. 보트를 운항할 때는 회원들을 주시하는 임무를 맡는 코치와 동행하고 구명 장비도 구비했습니다. 코치 중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습니다.

Q. 웨이크 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해 주신다면?

우선, 시작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트 운항이 전제되는 스포츠인 탓에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물에서 충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입수 훈련도 단계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피서 차 웨이크 스포츠를 배우는 분들이 많이 때문에, 가족단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Mini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오세영웨이크캠프' 회장 오세영입니다.



웨이크 스포츠는 근력은 물론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즐길 수 있고 가족 단위 취미로도 좋습니다.

동호회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선수 생활할 때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 기쁘고,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초심자가 숙련자가 되고, 눈에 띄는 기량 향상을 바탕으로 대회 출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캠프를 운영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웨이크 스포츠 동호회로서 수상실적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수영 꿈나무들의 무대,

모동중학교 수영부 창단식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강소정

현재 대한민국 수영이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황선우, 김우민 선수 등 실력 있는 수영 선수들이 여럿 등장하면서 한국 수영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커진 가운데, 지난 7월 12일(금),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모동중학교에서는 수영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수영부 창단식이 열렸다.

창단식은 모동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 및 국민의례, 내빈과 선수단 및 지도자 소개, 수영부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손영욱 모동중학교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사상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내 학생 및 선수 학부모 등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소개된 모동중학교 소속 수영부 선수는 총 6명이며, 2명의 지도자가 수영부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모동중학교 수영부는 지난해 10월 창단 승인 이래로 수많은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부산 친구스포츠클럽과 수영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중국 상해 오송중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더불어 중국 상해에서 해외 전지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협약은 큰 무대를 바라보는 학생 선수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제공해 줌으로써, 선수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선수들의 진학과 훈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선진국형 협력 모델의 틀을 갖추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5월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모동중학교 수영부 2학년 박도훈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수영부 창단 후 현재까지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창단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운동부에서 이룬 성과임을 감안하면, 훗날 우수한 엘리트 수영 선수가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모동중학교 수영부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3년간 육성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손영욱 모동중학교장은 “우수한 선수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수영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교내 수영부를 창단했으며,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본교 선수단들이 더욱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모동중학교의 수영부 창단으로 부산 지역 중학교 수영부는 총 5개가 되었다.

부산 지역의 수영 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두터운 선수층을 형성함으로써,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부산 지역의 학교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수한 유망주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2024 부산체육꿈나무우수선수 장학금
일시 : 2024. 7. 24.(수) 15:30 장소 : 부산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지난 7월 24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2024 부산체육 꿈나무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장학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꿈나무육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번 장학금은 2024년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입상자 및 전국대회 입상자에게 1인당 1백만 원을 수여하는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과 2023~2024년 전국소년(동계)체전 2연패 달성 선수 및 2024년 전국소년 체전 다관왕(금메달 2개 이상) 선수에게 3백만 원을 수여하는 꿈나무 MVP장학금 2종으로, 26개 종목 초·중학생 142명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행사가 열린 부산광역시체육회관 회의실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해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이오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장, 초·중학교 우수학생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미래 체육인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꿈나무 MVP장학금을 수여 받은 선수는 분포초등학교 공건(수영), 모전초등학교 박채운(수영), 대전리중학교 김나윤(유도), 영선중학교 김건우(펜싱)다. 이들은 장학금 수여와 더불어 행사에 참여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들과 학부모에 앞으로 운동에 더 매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소감 겸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꾸준한 육성사업 덕분일까, 부산시 선수단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3년 만에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축구 종목 남중 부문에서 17년 만에, 육상 높이뛰기 종목 여초등 부문에서는 11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약체 종목으로 평가받던 선수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그리고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꿈나무 선수들이 선전한 결과 17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게 됐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꿈나무 선수들에게 장학금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2024 부산체육꿈나무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일시 : 2024. 7. 24.(수) 15:30 장소 : 부산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앞으로도 부산광역시 체육 꿈나무 선수들이 다방면 지원 아래 국제 대회에서 이름 날릴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

뜨겁고 훈훈했던,
2024 부산체육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금광진



Yacht

요트

바다는 예로부터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자유를 갈망해 바다로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거센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도 막을 수 없는 출항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요트란?

‘돛을 단 서양식 소형 범선’ 요트의 정의다.

돛(Sail)에 바람을 받아 풍력으로 나아가는 점에서는 돛 단배와 같지만 풍상 측 즉, 맞바람을 받아 나가는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게 요트의 특징이다.

비행기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베르누이의 정리)과 동일한 원리로 추진하는데 풍향 기준 좌우 45도의 노고존(No-Go-Zone)을 제외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중국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전진이 가능하다.

바람을 읽고 감각적으로 조종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면서 항해 능력을 겨룰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이 스포츠화된 것이

지금의 요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국제세일링연맹의 전신인 국제요트연맹이 설립되었고 1896년 제1회 아테네 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그 해 기상 악화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다음 대회인 제2회 파리 대회부터 경기를 치렀다.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선 윈드서핑, 스킵, 딩기, 카이트, 멀티힐 종목이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 해운대구청 소속 하 지민 선수가 대한민국 유일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출처: 대한요트협회



한국 요트사

1930년경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씨가 한강변에서 요트를 제작, 황해 요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한강 하류에서 활동한 것을 호시로 본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요트 금지령을 내렸지만, 광복 이후 미군들이 요트를 다시 타기 시작했다.

60년대 들어서는 한국인들도 개인적으로 요트를 제작해 즐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 몇몇 동호인들이 한강변 광나루에 호수용 턴 클래스(turn class) 20척을 합판으로 제작해 대한요트클럽을 설립하며 요트 보급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1974년 4월, 마침내 대한조정협회에 요트부를 신설하고 요트경기 보급에 나섰다.

1979년 3월 17일, 대한요트협회를 창립하면서 본격적인 보급 단계에 들어섰으며 대한체육회와 세계요트연맹에도 가입하였다. 1986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경기력도 조진섭 선수가 1984 LA올림픽 윈드글라이드급, 심이섭&강할수 선수조가 1982 인도 봄베이아시안게임 엔터프라이즈급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향상되어 박길철 선수가 1986 서울아시안게임과 1990 부산아시안게임 레이저급에서 첫 2연패를 이룩하였으며, 김대영&정성안 선수 조는 1998 방콕아시안게임, 2002 부산아시안게임, 2006 카타르아시안게임 470급에서 3연패를 이룩하였다.

1998 방콕아시안게임(금6, 은1, 동3), 2002 부산아시안게임(금6, 은2, 동2)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성적을 거둬 경기력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2005년 세계청소년요트대회, 2006년 세계레이저클래스선수권대회, 2006년 세계포물러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에는 세계요트연맹 연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

출처: 대한요트협회

세부종목



딩기(Dinghy)

엔진과 선실이 없는 작은 요트를 말한다. 주로 2인승 이하이며, 올림픽 10개 종목 중 6개가 딩기요트로 경기를 펼친다.



킬보트(Keel boat)

선저에 무거운 철판을 붙여 무게 중심을 낮춘 보트다. 복원력이 좋아 먼 바다 항해에 적합하다. 선실이 없는 단일형 킬보트와 선실이 있는 대형 킬보트로 나눌 수 있는데,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전자다. 대형 킬보트는 스포츠보다 레저, 먼바다 항해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멀티힐(Multihull)

선체가 두 개 이상인 요트다. 선체가 두 개인 것은 카타마란, 세 개인 것은 트라이마란이라 부른다. 선체가 나뉘 있어 속도가 느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윈드서핑(wind surfing)

흔히 알려진 선체가 아닌 서핑 보드 위에 세일을 부착한 형태다. 빠른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고 장비가 비교적 저렴해 개인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카이트보딩(Kite boar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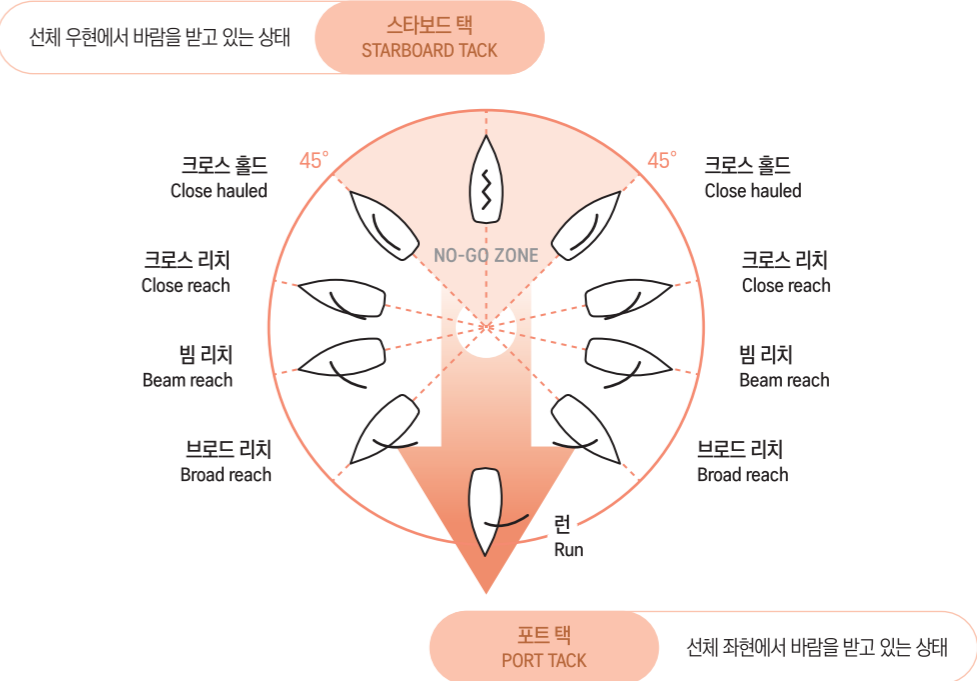
카이트(Kite, 연)를 이용해 상공의 바람을 활용, 수면을 기동하거나 점프하는 기체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색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다.



맞바람에도 항해 가능한 요트!

세일링 용어

요트는 선체 중앙에서 수면 아래로 내려진 횡류 방지 장치가 있어 선체가 옆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준다. 또, 풍상측 기준 좌우 45° 범위(No-Go-Zone)를 제외하고 어떤 방향으로도 범주할 수 있어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결과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러핑

풍상측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러핑이라고 한다. 러핑을 과하게 하여 선체가 노고존(No-Go-Zone)을 향할 경우 요트가 정지하므로 선체와 바람의 각도가 35~4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베어링 어웨이

풍상측에서 풍하측으로 코스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크로스 홀드

크로스 리치에서 조금 더 러핑, No-Go-Zone에 인접한 방향(풍상측)으로 범주하는 것이다.

빔 리치

바람과 선체가 90° 각도로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단순하고 강풍에도 위험하지 않아 초보자가 가장 먼저 익히는 기술이다.

브로드 리치

빔 리치 상태에서 베어링 어웨이 시켜 풍하측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돛을 낮추고 센터보드를 1/4정도만 내린 상태로 조정한다.

러닝

순풍을 받아 범주하는 방법으로 바람과 요트의 진행 방향이 거의 동일한 운항을 뜻한다.

2024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초량재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Modern & Contemporary History Museum
HANSUNG1918
Choryang House

SWEEPING IN
THE DARK
어둠에서 보기

2024부산비엔날레, 뜨거운 여름 개막을 알리다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부산비엔날레가 8월 17일(토)부터 10월 20일(일)까지 65일간 개최된다.

2024부산비엔날레 《어둠에서 보기》는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초량재 등 부산의 주 전시장뿐만 아니라 원도심 일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른 저 너머를 상상하다

‘부산비엔날레’는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2년마다 공동 주최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현대미술 전시회로, 올해는 《어둠에서 보기》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이번 전시는 전시 감독 베라 메이와 필립 피로트가 공동으로 이끈다.

2024부산비엔날레는 ‘해적 계몽주의’의 개념을 한 축에,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다른 한 축에 두고 둘 사이의 지적 공간에서 펼쳐지며, 오늘날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상상하는 것을 제안한다. ‘어둠’과 ‘보기’는 시각적 역설로, 대중이 수동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은유적 어둠을 일컫는다. 즉,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 확장된 감각, 깨달음 등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시대상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시선을 상징하는 이번 전시의 배경에는 자율적인 무정부 사회의 초기 형태와 같은 ‘해적 유토피아’와 속세로부터 떨어져 나와 운영되는 불교에서의 ‘도량’의 개념이 도입됐다.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공동체 사회이자 해방의 공간인 두 개념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세계와 문화를 탐구하고, 시대에 요구되는 공간과 세계를 재구상하는 기획 의도가 반영됐다.

* **해적 유토피아**: 정부 또는 거대 자본의 손이 닿지 않는 자치 사회의 초기 형태로 다문화적이고, 정신적으로 관용적이며, 성적으로 자유롭고, 때로는 순수한 평등주의 사회를 포용했다. 해적 유토피아 안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문화나 피부색에 따른 구분 없이 가장 뛰어난 해적들로 이루어진 협의회에서 협상과 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 개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는 해적들의 이러한 실험이 유럽 계몽주의 운동에서 발견되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의 원형이라고 말한다.

* **도량**: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일에 중점을 두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 곳으로 기능된다. 도량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규칙과 공동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부처의 모습은 ‘언제나 이미 비어있는 기표’이자, ‘정체성을 비워낸 정체성’이다. 이는 곧 거처 없는 자, 디아스포라 또는 고도로 세계화된 조건 안에서 방랑하는 ‘머물 곳 없는 자’를 나타낸다.

부산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

‘부산비엔날레’는 2022년 안정된 전시 운영과 탄탄한 기획력으로 ‘웰-메이드 전시’로 평가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한 비엔날레 정부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화제를 모았다. 또한 영국의 미술 전문지 <프리즈(Frieze)>에 세계 10대 전시로 소개되기도 했다.

2024부산비엔날레는 지역과 해외의 문화예술단체, 전시기획자, 참여작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로컬리티의 교류를 확장하는 다양한 연계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전시 주제와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협업 프로그램도 구현된다. 부산의 도시환경과 정체성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전시장소를 확보하고, 다양한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한 덕분에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여름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까지, 부산시민을 포함한 많은 관람객이 ‘2024부산비엔날레’를 찾아 예술 문화의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



📍 부산현대미술관



📍 부산근현대역사관



📍 한성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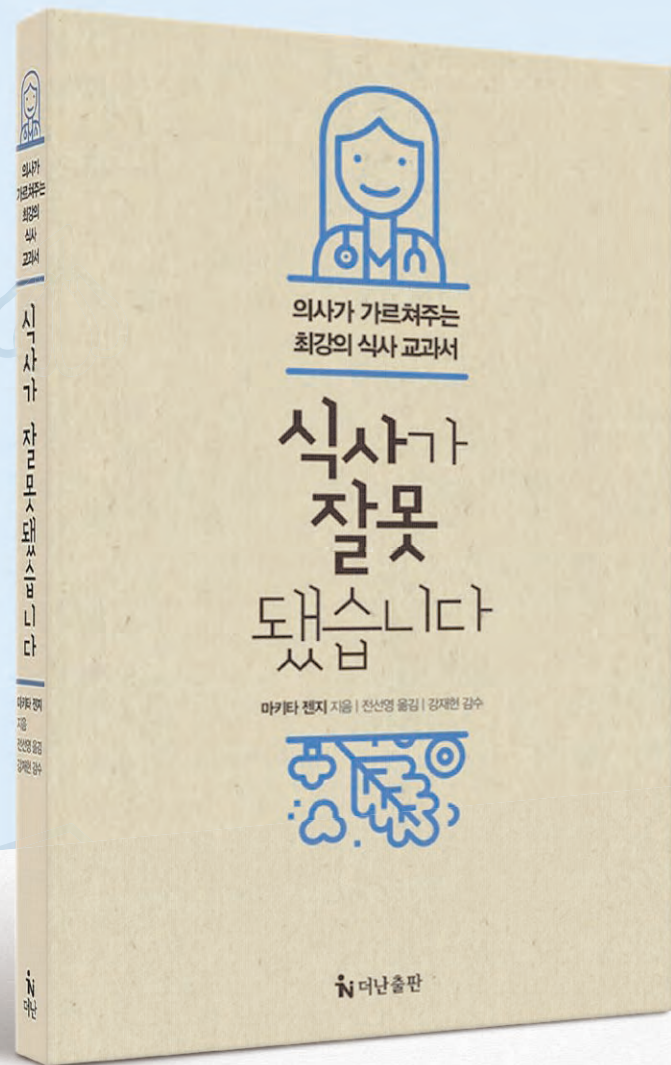


📍 초량재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

식사가 잘못 됐습니다

저자 마키타 젠지 / 출판사 더난출판사



“ 식사는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강의 기술이다. ”

잇달아 등장하는 최신 다이어트 식단이나 유행하는 식사법 중에는 인간의 생체 원리를 무시하거나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속설, 일부 효능을 확대 해석하는 비과학적 식사법도 적지 않다. 흔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무엇이 균형 잡힌 식사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식사법일까?

매일 아침 갓 짜낸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캔 커피를 마시며,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늘 삼가왔다면? 지금까지 당신의 식사는 잘못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에 대한 상식은 실제로는 틀리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몸무게가 조금씩 늘더니 도통 줄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며, 업무 도중에 곤장 졸음이 느껴지는 현상은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바로 혈당 조절의 실패에 있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저자는 최근 1세기 동안 현대인이 제멋대로 식생활을 바꾸려 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본의 장수 마을과 단명 마을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과 장수의 관건은 그 무엇보다 식생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수 마을 주민들은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먹고,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히,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은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했다. 이런 식생활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식습관과 유사하다.

인간의 소화·흡수 시스템과 그것을 조절하는 뇌의 메커니즘은 선사시대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의 식탁 위에는 이런 인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타고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부자연스러운 음식들이 넘쳐난다. 따라서 저자는 신석기 시대에 없었던 음식은 현대인도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캔커피나 주스처럼 ‘씹을 필요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그 대표적인 예다. 액체 형태의 탄수화물은 혈당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린다.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초조함, 졸음 등의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는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식사를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식사 교과서다. 당질 제한식의 권위자로 20만 명이 넘는 임상 경험을 보유한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인 저자는 이 제까지의 임상 경험을 집약하고, 나날이 갱신되는 의학 논문과 통계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비만, 노화, 질병을 부르는 음식을 피하고, 의학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한 권에 정리했다.

저자는 식사가말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강의 기술이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발견해 보자.

BSC SPORTS NEWS

Busan Sports Council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D-100 부산선수단 출정식 및 2024 스포츠 인권교육 개최



7월 3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D-100일을 맞아 부산선수단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하여 체육회 임직원과 실업팀 선수단 및 경기지도자 등 110여 명이 참여하여 필승 의지를 다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대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 노력으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김

해시를 주 개최지로 경상남도 일원에서 49개 종목이 개최되며, 부산선수단은 49개 종목에 1,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인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2024 스포츠 인권교육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가혹행위, 성범죄 등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선수단 역량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 코디네이션 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도 추가로 진행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2024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공모사업 국비예산 확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4년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1,75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91개 단체 546개 팀이 신청하여 총 53개 단체 292개 팀이 선정되었다. 국비 예산 30% 삭감에도 불구하고 신청 사업 예산 95%를 확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개의 실업팀(위탁운영팀 포

함)이 지원받게 됐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확보한 예산을 각종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용품 구입, 전지훈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산체육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갈 공식후원사 모집 추진



후원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후원권리 가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선두적인 스포츠마케팅 사업 전개의 일환으로 지방체육회 최초 체육회 공식후원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주요 키워드로 논의되고 있는 체육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과 각종 체육 사업 확대로 부산체육 가치를 드높여 부산체육 발전 도모를 위한 것이다.

공식후원사 프로그램은 부산체육을 후원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면 참여 가능하며, 업종(카테고리)별로 하나의 기업을 선정한다. 또한 후원 규모에 따라 후원사는 공식 파트너(1등급), 공식 스폰서(2등급), 공식 공급사(3등급)로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주요 권리가 차등 적용된다. 현금 및 현

물 모두 참여 가능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후원 규모 및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체육회의 전략적 프로그램인 공식후원사 모집을 통해서 체육 프로그램 개선 및 사업 확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으며, 후원사에게도 긍정적인 마케팅 및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안정된 재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운영 주체 공모」사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4년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운영 주체 공모’ 사업에 부산 스포츠과학센터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비등락 스포츠 영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엘리트 스포츠 발전 및 선수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꿈나무 발굴을 위해 체격, 체력, 운동기능 평가 및 스포츠 적성검사를 통해 최종 30명의 스포츠영재를 선발하여 스포츠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 육성 실기 및 이론(스포츠 역사, 인성, 스피치 등), 스포츠 이벤트 참가, 전문 스포츠 체험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양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체험, 학부모 교육, 견학(진천국가대표선수촌,

국가대표과학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최신식 측정시설과 최고의 전문 인력 및 스포츠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부산지역 유관기관(교육청-회원종목단체-대학-스포츠클럽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적인 스포츠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꿈나무 선수층 저변 확대 및 전문 선수로서 발전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며, 7월 말부터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스포츠과학영재 육성 사업은 뿌리가 튼튼한 부산지역 미래 체육 인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외에도, “부산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엘리트 스포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4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운영

7월 13일(토)~14일(일), 2024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이 양일간 운영되었다. 총 5가족, 18명이 참가하였고, 래프팅 체험 및 동의보감촌, 목면시배유지 등을 관람하였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애를 쌓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등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서구체육회 2024 어린이체능교실

서구체육회는 지난 7월 20일(토) 서구민 어린이 23명과 함께 2024년 어린이체능교실을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바운스 트램폴린에서 즐거운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오후에는 광안리 레포츠텐터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워터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2024년 부산진구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지난 7월 27일(토)~28일(일) 경남 산청 일대에서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증진과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4 부산진구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진행하였다. 경호강에서 래프팅을 타기 위해 캠프에 참여한 10가족 40명은 안전수칙 교육을 받고 시원한 물살과 함께 래저를 즐겼다. 또한 늘비물고기 마을, 진주강주연못, 함안박물관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 가족 간의 마음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래구체육회 2024년도 동래구체육회 2차 이사회 개최

7월 17일(수) 함경면옥 동래점에서 동래구체육회 2024년도 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2024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결과 등 3건을 보고하였으며, 동래구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심의·의결하였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동래구체육회 정길호 회장이 체육회의 발전을 위하여 종목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체육회 모든 임원이 함께 단합하며 체육 발전의 토대를 의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달하였다.



동구체육회 동구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는 초량동에 위치한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식을 7월 18일(목)에 개최하였다. 지하1층, 지상9층 건물이며 6층, 7층 국민체육센터에 동구체육회가 입주하였다.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는 문화, 체육, 돌봄, 다문화, 가족, 도서관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날 황현선 동구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임원, 김진홍 구청장 외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축하 커팅식을 가졌다.

종류	프로그램	요일	시간	대상	비고
수업	영도국민체육센터 (사모수영장)	(일요일)	18:00-19:00	20명	
행사	영도국민체육센터 (수도구)	(일요일)	18:00-19:00	20명	6,000원
행사	영도국민체육센터 (수도구)	(일요일)	19:00-20:00	20명	1,000원
행사	영도국민체육센터 (수도구)	(일요일)	19:00-20:00	20명	
행사	영도국민체육센터 (수도구)	(일요일)	19:00-20:00	20명	

연차	ACR	TR	REC	TR	TR	SAT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영도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 모집

영도구체육회는 8월 1일(목)~8월 10일(토) 10일간 영도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영도구 주민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지만 보험료는 개인별 부담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총 4개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홈페이지(<https://yid7330.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체육회 2024년 어린이체능교실

7월 6일(토) W스퀘어 내 볼스퀘어&바운스트램폴린파크부산에서 '2024년 어린이체능교실'이 열렸다. 이날 오은택 남구청장이 참석하여 어린이체능교실에 참여하는 남구 관내 초등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남구청 실업볼링팀 선수들도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볼링을 지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체육회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

북구체육회는 지난 7월 5일(금) 사직실내수영장 2층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 교육장에서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교육 일정은 1교시 OT 및 레저스포츠의 이해, 2교시 레저스포츠 안전 및 트렌드 레저스포츠, 3교시 수상한자 응급처치 이론, 4교시 수상한자 응급처치 순으로 교육을 받았다. 북구생활체육지도자들이 레저스포츠 안전지도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사하구체육회 부산아이파크 U12·15 WFC 창단식 개최

지난 7월 22일(월) 오후 7시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축구팀인 '부산아이파크 U15 WFC'와 '사하구아이파크 U12 WFC'의 창단식이 열렸다. 창단식에는 한국여자축구연맹 오규상 회장, 사하구체육회 이영수 회장과 더불어 부산시 OB축구회 최영완 회장과 부산시축구협회 김기철·김기수 부회장, 부산시교육청 김창민 단장, 정용환장학회 송춘열 회장 등 축구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번 U12, U15 WFC팀 창단을 시작으로 5년 내 고등부까지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앞으로 10년 내 부산아이파크 출신 여자축구 국가대표 배출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금정구체육회 2024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금정구체육회는 7월 20일(토) 금정구 관내 거주 가족 15팀(4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운영하였다. 경주 블루윈 워터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파도풀, 캐논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가족 간의 건전한 소통과 건강한 여가 문화를 실천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한편 참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금정구체육회 직원 일동이 함께하였으며 금정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연제구체육회 2024년 제15회 연제구청장기 국학기공대회

연제구체육회(회장 김진근)는 7월 7일(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국학기공 10개 클럽 동호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연제구청장기 국학기공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로는 우승 천신무예클럽, 준우승 아리랑클럽, 공동 3위 연산9동복지관, 온천천광장팀이 수상했다.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회장 김재업)는 7월 17일(수) 18시 명지향칠오리 2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회장, 임원(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전차 회의록보고, 2024년 상반기 추진사업 결과 보고,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 및 참여의 건, 심의 사항으로 준회원단체 가입 승인의 건 외 기타안건 토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수영구체육회 2024 수영구청 태권도팀 선수단 훈련장 방문 격려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임직원은 7월 17일(수) 수영구청 태권도 실업팀 선수단 훈련장을 방문하였다. 훈련장인 양정모 기념 체육관에는 선수단의 힘찬 기합소리와 열기로 가득하다. 바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때문이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영구청 태권도실업선수단은 그 어느 때보다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황대성 회장은 훈련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으며, 전국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이기정 감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사상구체육회 2024 사상구체육회 3차 정기이사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7월 5일(금)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상구체육회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전반기 실적과 하반기 행사 일정 등을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조병길 전 사상구청장, 이종구 구의회 의장이 이사회장을 방문해 사상구체육회 임원들을 격려했고 강진태 회장은 허영배 고문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는 한편, 김평규 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사상구체육회는 하반기 부산씨름왕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장배대회와 부산시민대축전, 2024 전국사상ECO 마라톤 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장군체육회 2024 여름 가족 해양스포츠체험 교실

기장군체육회는 여름을 맞이하여 7월 20일 울산 나사리해수욕장에서 '2024 여름 가족 해양스포츠체험 교실'을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1부 30명, 2부는 15시부터 45명으로 총 7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스릴 넘치는 해양스포츠를 총 3개의 기구인 바나나보트, 디스코팡팡, 제트스키를 체험하며 가족과의 가족애를 확인하고,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더 나아가 전문 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농구 분야에 전문지도자를 공개모집하여 박언주 지도자를 공개채용하였다. 대신초-동주여중-동주여고를 졸업하고 여자 프로리그 신한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등 다수의 프로팀에서 뛰었던 박언주 지도자는 "침체되어있는 농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대대적인 홍보 효과로 인해 많은 초등학교생들이 등록하여 두 배 이상 등록인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수준높고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에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체육센터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체육프로그램(농구) 프로출신 지도자 채용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는 8월 1일(목)부터 수영장 복장 규정이 새롭게 적용됐다. 수영장의 깨끗한 수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수영장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수영장 복장 규정 변경 안내

영도국민체육센터

영도국민체육센터는 5월부터 시작된 영도구체육회에서 주최한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수업이 7월 18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수영, 필라테스, 줌바댄스, 라인댄스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실은 영도구민이거나 직장이 영도관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용가능했고, 운동에 관심은 있으나 접근이 힘든 초보자들을 위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요즘 뜨고 있는 줌바댄스와 라인댄스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았으며,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이번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교실수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1인 1종목만 신청 가능하다.



2024년 영도구민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수료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실내빙상장에서 7월 13일(토)~14일(일)에 걸쳐 전국 19개 동호회 빙상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6회 전국빙상동호인 부산광역시대회가 성대하게 열려 기량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는 부산실내빙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빙상클럽이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제6회 전국빙상동호인 부산광역시대회 개최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7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테니스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테니스장 천장 등 폴라볼트 조임 및 재설치, 주각보 몰탈 파손 보수, 감전사고 예방 스탠드 전기선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다. 주기적인 시설 안전사고 점검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에 힘쓰고 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개보수 공사 실시

신평장림체육관

지난 7월 1일 개관한 신평장림체육관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강사들의 수준 높은 지도와 회원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수영, 아쿠아로빅 2개 프로그램은 등록 마감률 하였으며, 7월 18일(목)부터 기존회원 재등록, 7월 25일(목)부터 8월 신규회원 등록을 받고 있다.



8월 프로그램 등록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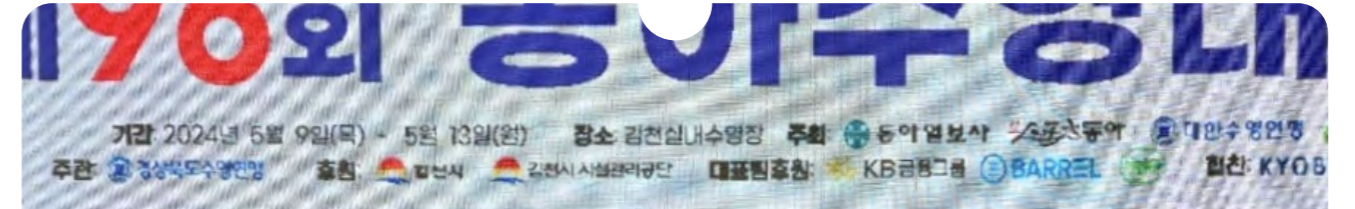
디비전리그 및 유청소년 스포츠리그(이리그) 개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한테니스협회 공모사업인 디비전리그와 유청소년 스포츠리그(이리그)를 개최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육성을 위해 시작한 성인 대상 디비전리그와 유청소년 테니스 흥미 부여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유청소년 스포츠리그(이리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며 총 442명이 참가하여 테니스 리그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대회이다. 구·군 예선전과 부산시대표 선발전을 통해 11월 전국 대회에 부산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수영선수단 김태현 선수 첫 메달 수상



동의과학대학교 수영선수단 김태현 선수가 전국 대회에서 처음 시상대에 올랐다. 제96회 동아전국수영대회와 제20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서 각각 은메달을 수상한 것. 박정주 감독은 "태현이가 지금까지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 대회 메달을 따서 너무 대견하다"라며 "앞으로의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라고 선수를 격려했다. 김태현 선수는 초등학교 때 수영을 시작해 꾸준히 기량을 발전시키며 2024년 소년체전 부산 대표로 선발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대회에서는 수상 경력이 많지 않지만, 전국 대회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특별하다. 김태현 선수는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노력해서 국가대표 김우민 선수 못지않은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룡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래주건설(주)

태하건설(주)



시민공원 일동미라주 시티



부산항 일동미라주 더오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



산장유 일동미라주



부산 연산동 일동미라주



진주 강남동 일동미라주



김해 관동동 일동미라주 더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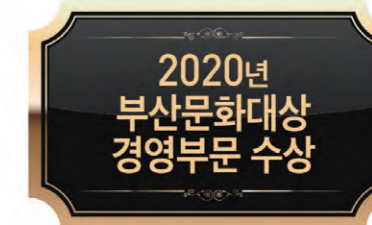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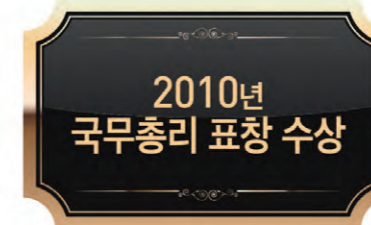
부산 영도 일동미라주



울산오양 일동미라주



울산 매곡중산자구 나스타이 일동미라주 더스타





안녕하세요. 1등 테크 기업, 화승입니다

화승은 압도적 탄성체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 기업으로 앞서갑니다.
초격차의 기술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No.1 Tech Company
HWASEUNG

HWASEUNG 화승은 인화(人和)의 경영이념 아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수익성 최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고유한 기업자산 구축의 핵심가치를 통해 100년 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동차부품 스포츠패션ODM 소재 종합무역 화학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포를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신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료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레스트 제공

○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특특**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특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시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딱풀아, 안녕!

이거는 엄마, 이거는 아빠,
그리고 이건 딱풀이예요!
딱풀이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언니가 초등학교가 되면
딱풀이를 잃어서서 안아주고 달래줄게!

동생을 기다리는 윤서의 순수한 마음,
그 착하고 예쁜 마음이 있어
우리의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과 두근거림,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BNK부산은행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본 광고는 BNK해운대어린이집에 다니는 윤서와 동생 딱풀이(태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BNK부산은행은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잘 그려지 않아도 되는 그림대회'를 실시하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딱풀이를 그려준 윤서는 곧 찾아올 동생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잘 그려지 않아도 되는 그림대회 관련 영상은 BNK부산은행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